

하반기 와인 키워드... 화이트·고급화·스파클링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왼쪽부터)칠레 스파클링 와인인 리트모 엑스트라 브뤼, 미국 베링저 나파밸리 샤르도네, 뉴질랜드 크래기 레인지 테 무나 피노누아, 아르헨티나 트라피체 그란 메달라 말베.

와인 소비가 많이 줄었다는데 어떤 와인은 품질 대란이란 다. 와인 시장이 작년부터 꺾였다고 해도 물량으로 보면 정점을 찍었던 당시보다 줄었을 뿐 절대적인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많다. 팔리는 와인은 또 잘 팔린단 얘기가.

이젠 와인 수입사들의 실력이 가감없이 드러날 차례다. 누가 인사이트를 발휘해 와인 소비자들의 입맛을 먼저 사로잡을지 말이다. 수입사들이 매달 와인 수입 통계가 집계되길 기다리며 작은 변화에도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하반기 와인 시장을 지배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화이트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의 부상이다. 레드와인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수입주류통계데이터에 따르면 약 65%까지 달했던 레드와인의 비중은 지난 2021년 63%, 2022년 62%에서 2023년 55%로 하락했다. 스파

클링 와인의 비중이 2021년 14%에서 작년 21%까지 빠르게 상승했고, 화이트 와인은 18%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화이트와인이 선방했다. 상반기 기준 레드와인의 수입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나 줄었지만 화이트 와인은 7% 감소에 그쳤다. 와인 전체로 보면 상반기 수입규모 감소폭은 18%다. 레드와인이 감소를 주도하고, 화이트 와인이 방어해준 모양새다.

정원남 금양인터내셔널 과장은 “상반기 동안 화이트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의 소비가 늘면서 더 가볍고 상쾌한 와인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점점 더 다양한 음식이나 상황과 어울리는 와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입맛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와인의 성장세도 화이트와인의 부상 속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뉴질랜드는 2017년까지만 해도 국내 수입와인 국가 순위 톱10위에도 들어오지 못했다. 작년 7위까지 올라오더니 올해 들어서는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호주를 앞질렀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뉴질랜드 와인만 유일하게 수입이 늘었다. 뉴질랜드 소비봉 블랑이라고 하면 ‘믿고 마신다’고 할 만큼 대표주자가 있는 데다 실망을 준 적 없는 품질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스파클링 와인은 일상속으로 들어왔다. 특별한 날 큰 맘 먹어야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데일리 와인으로도 가능한 인식이 되었다.

금양인터내셔널이 올해 데일리 스파클링 와인으로 내놓은 칠레 ‘리트모 브뤼’는 적지 않은 물량을 풀었는데도 모두 품절됐다.

편의점에서도 스파클링 와인전을 기획하는가 하면 이마트는 초저가 스파클링 와인을 선보이며 대중화에 나섰다. ‘고급화’도 하반기 와인 시장을 이끌

키워드 중 하나다. 생산국가나 지역, 와인 종류를 불문하고 전반에 걸친 변화다.

실제 올 상반기 수입된 와인의 병당 평균단가는 미화 6.8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했다. 와인이란 게 그렇다. 마시기 시작하면 더 좋은 와인을 찾게 되는 법이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트렌드에 민감하고, 품질에 예민한 우리나라는 속도가 더 빨랐다.

업계에서는 미국와인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컬트와인을 비롯해 고품질 와인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 과장은 “한 번 와인을 마실 때 제대로 된, 비싼 와인을 마시겠다는 소비 성향으로 볼 수 있다”며 “와인 시장의 추세 변화는 바뀐 소비자 취향을 반영할 뿐 아니라 글로벌 와인 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기도 해 와인 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는 동시에 성장과 기회 영역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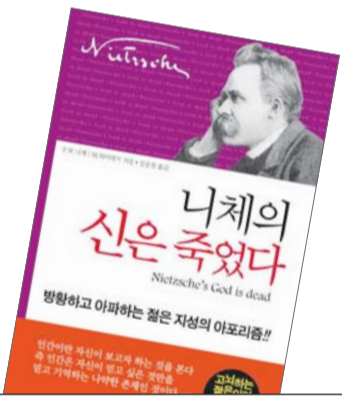
숲 속에서 성자를 만난 차라투스트라는 그에게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성자는 신을 찬미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고 답한다. 그와 헤어진 차라투스트라는 숲 속의 성자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받는다.

니체는 왜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는가.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동굴에서 내려온 차라투스트라가 ‘신을 살해한 자’를 맞닥뜨리는 장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책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게 생긴 그자’라고 묘사된 살인자는 차라투스트라에게 “그를 죽인 자, 즉 신을 살해한 자의 기분이 어떠한지 그대는 알고 있으리라. 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의 곁으로 오라.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 아니다”고 이야기한다.

이어 살인자는 모순적인 말을 내뱉는다. 그는 차라투스트라에게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되, 저를 바라보지는 말라고 한다. 그는 “내가 그대 말고 다른 누구에게로 가려고 했겠는가?”라며 “이곳에 머물러 내 곁에 앉아라. 그러나 나를 응시하지는 말라. 그리하여 나의 추악함을 공경하라!”고 명령한다.

신을 죽인 연유로 살인자는 심한 박해를 받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이룩한 모든 성과는 저처럼 사람들로 부터 심한 박해를 받는 자들이 이룬 것이기에, 그는 떳떳하다. 그런 그가 못 견디게 힘들어하는 건 ‘박해의 방식’이다. 그는 “그들은 증오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 포수로 하여금 나를 뒤쫓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 박해라면 나는 얼마든지 비웃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다”며 “그러



니체의 신은 죽었다
프리드리히 니체, 마르틴 하이데거 지음/스타북스

나 내가 도망쳐 나온 것은 그들의 ‘동정’으로부터이다”고 고백한다.

책에서 니체는 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가 두 눈으로 인간의 밑바탕과 속을, 감춰진 모든 치욕과 추악함을 봤기 때문이다. 신은 항상 인간을 보고 있었고, 인간은 이런 목격자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고로 모든 것을, 인간까지도 깨물어본 신은 죽을 운명에 처한다. 자신의 밑바닥을 본 목격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던 인간, 즉 살인자는 결국 국신을 죽이기에 이른다.

니체는 악마의 입을 빌려 “신에게도 지옥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이다. 신은 죽었다. 인간에 대한 동정 때문에 죽었다. 그대들이여, 동정을 경계하라!”며 “이 말 또한 명심하는 것이 좋으리라. 모든 위대한 사랑은 동정의 단계를 초월해 있다. 그것은 대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하기까지 한다”고 말한다. 320쪽, 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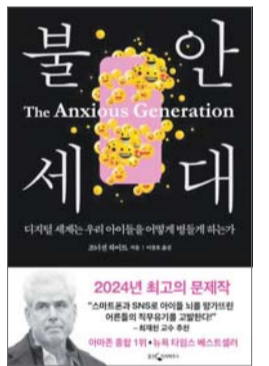
/김현정 기자 hik1@

불안 세대

조너선 하이트 지음/이창호 옮김/웅진지식하우스

하루 7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5분에 1개씩 푸시 알림을 받는 아이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10대 우울증 2.5배 증가, 만성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 139% 급증, 여성 청소년 자살률 167% 상승...”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자 세계 각국에서 10대의 스마트폰과 SNS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

다. 미국 13개 주에서는 아동 SNS 제한 법률이 통과됐고, 프랑스는 13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호주 역시 16세 미만의 SNS 가입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저자는 “어른들이 현실 세계에서 아이들을 과잉보호하고, 가상 세계에서 지나치게 과소보호하며 10대의 정신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528쪽, 2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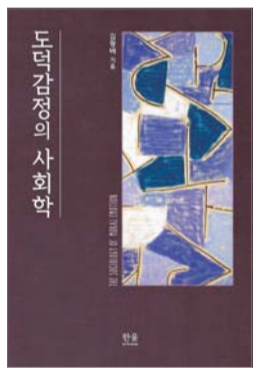


도덕감정의 사회학

김광배 지음/한울아카데미

‘도덕과 윤리’ 교육이 권위주의 정권에 충성하는 국민을 양산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덕감정’은 신물 나는 개념처럼 여겨진다. 즐겁고 올바르게, 보람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날 이런 질문은 시대의 불안 증후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 민주주의 퇴행과 불평등 심화로 인한 실존적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한 사유와 판단, 성찰과 실천을 요구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도덕감정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도덕감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하고 나쁜지를 사유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감정이다. 책은 혐오와 반지성주의, 분노와 무기력을 이겨낼 해법으로 사회적 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에너지, 도덕감정을 제시한다. 432쪽, 4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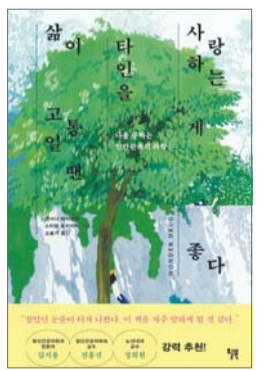


삶이 고통일 땐 타인을 사랑하는 게 좋다

앤서니 마자렐라, 스티븐 트리자와 지음/소슬기 옮김/윌북(willbook)

공감 결핍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외로움이라는 고질병을 앓는다. 만성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로 번아웃된 사람들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기계발에 몰두한다. 마음의 문을 닫고 심연으로 침잠하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립은 더 큰 외로움을 낳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책은 “우리의 몸과 뇌는 타인과 연결되고, 접촉하고, 협력

할 때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하며 과도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시달리는 사회와 홀로 자신을 지켜내려 애쓰는 현대인을 구할 특효약으로 ‘공감’을 처방한다. 오로지 내게만 집중하는 삶의 방식을 멈추고 더 많이 공감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저자들은 조언한다. 296쪽, 1만8800원.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안보리 참석’ 이란, 美책임론... “하니에 암살 승인했다”
▲ “이란, 하마스사령관 살해의 보복은 ‘잘 관리된 방식’으로 할 것” /사진 뉴시스

▲ 트럼프, 총격사건 이후 첫 펜실베이니아 유세... 해리스 향해 “해고”
▲ 친러 우크라이나 정치인 “美, 젤렌스키 교체하려 해” 주장



▲ 中·인도, 국경문제 실무회의... “해결 방안 조속히 도출”
▲ 日, 8월 중앙아 5국과 정상회의로 협력 강화... 중러 견제 /사진 뉴시스